

대지진 속 아파트 그리고 시장… ‘콘크리트 마켓’

문명 종말 후 유일한 시장
속고 속이는 반전의 연속
“각자의 재난 대처 방식에
젊은 세대가 공감할 것”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생존에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콘크리트 마켓’이 3일 관객을 만난다.

‘콘크리트 마켓’은 21세기 대지진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사고파는 ‘황궁마켓’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21세기 대지진으로 경제가 붕괴하고 문명의 종말이라 할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파트에 시장 ‘황궁마켓’이 형성된다. 이곳을 지배하는 사람은 박상용(정만식 분) 회장이다. 태진(홍경)은 그의 원팔로서 무리를 이끌며 상인들에게 돈을 걷고 박 회장에게 상납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 앞에 희



영화 ‘콘크리트 마켓’ 속 장면.

로(이재인)라는 정체불명의 소녀가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본격 시작된다.

시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인물의 행동을 거래라는 눈리로 풀어간다. 서로 원하는 바를 거래하고 목표를 위해 손을 잡거나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하는 식이다. 시장 원리를 이해하는 회로가 기준의 구조를 훈들게 된 것도 이런 이유다. 여기에 인물의 사연과 감정이 얹히면서 이야기는 서로 속이는 반전을

거듭한다. 대지진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2023), 넷플릭스 영화 ‘황야’(2024)를 떠올리게 한다. 이에 대해 배경은 동일하지만, 별개의 영화라는 게 제작사측의 설명이다. 당초 시리즈 형태로 제작된 작품은 분량을 압축해 영화로 나왔다. 변모한 주연의 단편 영화 ‘타이애牢’을 연출했던 홍기원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배우들은 영화가 재난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점은 세대의 이야기라는 점을 짚었다.

이재인은 지난 1일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돼서 들이닥치는 변화가 개인에게는 재난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태진·회로 등 재난을 대처하는 각자의 방식에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이재인)라는 정체불명의 소녀가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본격 시작된다.

시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인물의 행동을 거래라는 눈리로 풀어간다. 서로 원하는 바를 거래하고 목표를 위해 손을 잡거나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하는 식이다. 시장 원리를 이해하는 회로가 기준의 구조를 훈들게 된 것도 이런 이유다. 여기에 인물의 사연과 감정이 얹히면서 이야기는 서로 속이는 반전을

의 가장 큰 차별점을 강조했다. 변호사와 판·검사 등 법정 이야기는 드라마계 단골 소재다. 올해만 해도 ‘서초동’, ‘에스콰이어’가 각각 중소 법무법인, 대형 로펌의 이야기를 그렸다. 매년 다양한 법정 이야기가 다뤄지면서 이제 법정률은 뺀다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있었다.

이에 ‘프로보노’는 다른 드라마들이 다루지 않았던 대형로펌 공익 전담 변호사를 조명했다. 이른바 돈이 안 되는 사건들만 모아서 하는 공익소송팀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신선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주연은 배우 정경호가 맡았다. 정경호가 연기하는 강다윗은 원래는 대법관을 꿈꾸던 판사였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공직에서 밀려나 공익 소송팀에 떨어진 변호사다.

정경호는 “제가 본의 아니게 ‘사

짜’(사로 끌나는 직업) 역할을 많이 했다. 의사, 강사, 노무사, 형사 다했는데 이번에는 판사”라고 웃었다.

이어 “강다윗은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하고,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 자신과는 다른 면이 좀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로스쿨 수석 졸업 변호사 박기쁨(소주연 분),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일해 온 변호사 장영실(윤나무), 전투적인 성격의 변호사 유난희(서혜원), 생계형 변호사 황준우(강형석)까지 팀을 이뤄 공익 사건을 해결해나간다.

‘프로보노’ 극본은 ‘악마판사’, ‘미스 함무라비’를 쓴 문유석 전 판사가 맡아 리얼리티와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드라마는 ‘태풍상사’의 후속작으로 6일 오후 9시 10분 처음 방송된다.

연합뉴스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온라인 제작발표회.

CJ ENM 제공

tvN 프로보노 “소외계층에 초점 맞춰”

6일 첫방… 공익 변호사 조명 “다른 법정률과 차별점”

“드라마 제목 ‘프로보노’는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상담을 뜻해요. 공익 소송을 다룬다 보니 유기견,장애인, 외국인 여성 등 소외계층 이야기를 담았죠. 돈이 없어서 법률 서

비스를 못 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차별점 아닐까요.”

김성운 PD는 지난 2일 tvN 새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다른 법정 드라마와

의 가장 큰 차별점을 강조했다. 변호사와 판·검사 등 법정 이야기는 드라마계 단골 소재다. 올해만 해도 ‘서초동’, ‘에스콰이어’가 각각 중소 법무법인, 대형 로펌의 이야기를 그렸다. 매년 다양한 법정 이야기가 다뤄지면서 이제 법정률은 뺀다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있었다.

이에 ‘프로보노’는 다른 드라마들이 다루지 않았던 대형로펌 공익 전담 변호사를 조명했다. 이른바 돈이 안 되는 사건들만 모아서 하는 공익소송팀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신선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주연은 배우 정경호가 맡았다. 정경호가 연기하는 강다윗은 원래는 대법관을 꿈꾸던 판사였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공직에서 밀려나 공익 소송팀에 떨어진 변호사다.

정경호는 “제가 본의 아니게 ‘사

짜’(사로 끌나는 직업) 역할을 많이 했다. 의사, 강사, 노무사, 형사 다했는데 이번에는 판사”라고 웃었다.

이어 “강다윗은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하고,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 자신과는 다른 면이 좀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로스쿨 수석 졸업 변호사 박기쁨(소주연 분),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일해 온 변호사 장영실(윤나무), 전투적인 성격의 변호사 유난희(서혜원), 생계형 변호사 황준우(강형석)까지 팀을 이뤄 공익 사건을 해결해나간다.

‘프로보노’ 극본은 ‘악마판사’, ‘미스 함무라비’를 쓴 문유석 전 판사가 맡아 리얼리티와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드라마는 ‘태풍상사’의 후속작으로 6일 오후 9시 10분 처음 방송된다.

연합뉴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일일연극
마리와 벌난 아빠들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다큐 인사이트
22:50 KBS 뉴스리포트
23:30 이슈 펜션 함께 스페셜

18:00 경제코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3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20:30 옥탑방의 문제아들
21:30 개는 훌륭하다
23:10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재)

18:05 제주여성 허스토리 5(재)
18:35 지역MBC 공동제작
한국의 둘째길
20:30 키스 헤어!
21:00 키스 헤어!
21:30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재)

18:05 텐마스페셜
19:50 MBC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키스 헤어!
21:30 토일 미니시리즈
제주의 도전,
키본프리 아일랜드
22:00 구해줘! 홀즈
23:50 MBC 뉴스 25

18:00 경제코서트
18:35 지역MBC 공동제작
한국의 둘째길
20:30 키스 헤어!
21:00 키스 헤어!
21:30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재)

18:05 모닝와이드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IBS 아침 뉴스
8:50 텐마스 텐마스 심기 여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찾아온 꾸러기교실
11:15 건강의 재구성 셀렉션

오늘의 운세 4일

36년 친지나 자식의 도움이 큰 힘이 된다. 도움을 청하라. 문제가 해결된다. 48년 문서 또는 동산에 이익이 있다. 배불름 돌아온다. 60년 월치에 충실히 주변에서 인정받는다. 인기가 있는 날. 72년 내 물이 갈 곳이 많다. 어디든 오라면 가라. 84년 내 작은 힘이 주위에서는 큰 힘이 된다. 능력을 인정받는다.

37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웃여라. 만사가 길하다. 49년 건축·건설·자체 사업자는 분주. 문서계약에 신중하라. 61년 집안의 어른 문제로 걱정이 생기니 안부 전화. 미혼자는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다. 73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몸만 바쁘다. 95년 움직인 만큼 소득이 생긴다. 대인관계를 넓혀라.

38년 자신의 역량이 커지니 자만은 금물. 50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자원봉사. 자기홍보도 때로 필요. 62년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벌어지니 시비를 걸어와도 상대와 인정받는다. 74년 무엇이든 한곳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라. 결과가 있다. 86년 새로운 방향전환이나 미래를 계획하게 된다.

39년 배우자로 인한 일 발생. 부동산과 관련된 일로 재물지출. 51년 요식업·소개업·분야 협진. 계약과 관련된 일은 불리. 63년 직원이나 부하직원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75년 취업자에게 기쁨이. 이성, 시험 좋은 날. 87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른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40년 변동을 주려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52년 문서운 또는 매매 계약, 이동할 일이 생긴다. 64년 의욕과 직업이 생기니 활동할 것. 여행을 신중하고 조심하라. 76년 듣는 이가 있어 흥미가 눈앞에 보이니 최선을 다하라. 88년 여행이나 외출을 한다. 제우려는 욕망이 강하고 현실의 부족함을 느낀다.

41년 집안의 어른이 계시면 안부전화가 필요하다. 우환이 다가올 수 있다. 53년 바쁜 업무와 일로 피곤함이 누적된다. 휴식을 가져라. 65년 할 일이 많아지며 일에 대한 결과가 있다. 77년 주변의 돋는 이가 있을 때 힘을 합쳐 좋은 일을 한다. 독식은 금물. 89년 답답할 땐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Seacrest 2026)에 출연한다.

프로그램 측은 2일(현지시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이 포함된 올해 출연인 명단을 공개했다.

‘뉴 이어스 로킹 이브’는 매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전파를 타는 미국 유명 새해맞이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르세라핌과 이재·오드리 누나·레이 아미를 비롯해 머라이어 캐리, 포스트 말론, 채플론 등 쟁쟁한 팝스타가 출연한다.

연합뉴스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해드린 컴퍼니
14:00 KBS 뉴스
14:10 방송 후 초능력
14:40 트레일러 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10 백투더뮤직 시즌 2(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2:25 동네 바퀴(재)
13:3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스페셜
15:00 KBS 뉴스터임
15:15 월드 24
15: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2(재)
16:00 TV 유치원
16:30 누가 누가 잘하나
17:30 놓친예능 따라잡기

12:00 SBS 12 뉴스
12:25 실화탐사대 스페셜
13:25 헬로키즈
14:00 뉴스리포트
14:55 2시 뉴스 외전
15:55 텐마스 고GoGo
16:00 생활의 달인 스페셜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건강 허우스
17:30 누가 누가 잘하나
17:30 놓친예능 따라잡기

12:00 KBS 12 뉴스
12:25 실화탐사대 스페셜
13:25 헬로키즈
14:00 뉴스리포트
14:55 2시 뉴스 외전
15:55 텐마스 고GoGo
16:00 생활의 달인 스페셜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건강 허우스
17:30 누가 누가 잘하나
17:30 놓친예능 따라잡기

9:00 KCTV 9시 뉴스
9:30 러브인 제주
10:00 산증명 및 상속
11:30 도시재생 기획
13:20 방송콘텐츠경쟁대회
14:00 제주전국민대전
15:20 낙산비·제주살이
16: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7:30 러브인 제주
18:00 KCTV 아카드 컬렉션
19:00 KCTV 종합뉴스
제주CBS FM 93.3MHz
7:20 김현정의 뉴스
9:00 그대 창기에 알레스입니다
12:00 CBS 뉴스
제주CBS FM 90.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8:00 제주제작
19:00 KCTV 아카드 컬렉션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8:00 제주제작
19:00 KCTV 아카드 컬렉션
20:00 CBS 뉴스

제주CBS FM 93.3MHz
7:20 김현정의 뉴스
9:00 그대 창기에 알레스입니다
12:00 CBS 뉴스
제주CBS FM 90.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8:00 제주제작
19:00 KCTV 아카드 컬렉션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8:00 제주제작
19:00 KCTV 아카드 컬렉션
20:00 CBS 뉴스

고레에다 히로카즈 ‘룩백’ 실사 영화로

내년 국내 개봉 예정

세계적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후지모토 다쓰키 작가의 만화 ‘룩백’을 실사 영화로 선보인다.

메가박스는 ‘룩백’ 실사 영화가 내년 국내에서 개봉한다고 3일 밝혔다.

‘룩백’은 그림에 대한 열